

용주사 소장 正祖代 王室 內賜品

유경희, 이용진

I. 머리말

II. 용주사의 창건배경과 왕실 물품의 內賜

III.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IV. 〈文王方鼎〉과 〈宣德爐〉

V.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

유경희, 「高宗代 純獻皇貴妃 嚴氏 發願 불화」(2014), 「조선시대 왕실 여성 발원 불화」(2015), 「LA 카운티미술관 소장〈신흥사 영산회상도〉」(2015) 등.

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전향상〉안의 향과 향구의 재구성」(2014), 「고려시대 불교공예품의 조성방식-연화와 회사」(2015), 「宋代 工藝批評書들과 鑑識眼」(2015) 등.

용주사 소장 正祖代 王室 內賜品

柳京熙, 李溶振*

I. 머리말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에서는 사찰종합조사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대표적 왕실 원찰인 용주사 소장의 문화재를 조사하였다.¹ 경기도 화성시 花山에 자리한 龍珠寺는 조선 제 22대 왕인 正祖(재위 1776~1800)가 思悼世子の 무덤인 顯隆園을 수호하기 위해 창건한 陵寢寺刹로, 이곳에는 왕실로부터 內賜된 유물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정조가 부처의 복을 기원하는 偈를 지어 이를 목판으로 새기고 용주사에 내사한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이하 〈기복계〉)와 정조의 소장품으로 同 사찰에 내린 〈文王方鼎〉과 〈宣德爐〉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유물들은 정조의 불교관과 18세기 후반 왕실 소장품의 성격 등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복계〉와 〈문왕방정〉 및 〈선덕로〉의 가치를 밝히고 사찰종합조사의 성과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 Ⅲ장은 유경희가, Ⅳ장은 이용진이 작성하였고, 전체 정리는 유경희가 하였다.

¹ 2015년 사찰종합조사는 미술부 주관 하에 보존과학부와 협력으로 6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3차로 나누어 총 135건 282점의 용주사 소장유물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2016년도에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도움과 배려를 해주신 용주사 성월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효행박물관 부관장 보운스님, 이종은 중무실장 및 사찰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조사내용	조사자	조사대상 유물
1차 조사 (6.29~7.3)	불교공예, 경판·전적류	미술부: 황지현, 유경희, 이용진 보존과학부: 유혜선, 윤은영	〈文王方鼎〉 등 66건 212점
2차 조사 (7.6~10)	불교회화, 佛幡	미술부: 황지현, 유경희, 이용진 보존과학부: 천주현, 박승원	〈三世如來佛圖〉 등 24건 25점
3차 조사 (9.8~11)	불교조각, 일반회화	미술부: 장진아, 문동수, 신소연, 권혜은 보존과학부: 노지현, 윤은영	〈三世佛像〉, 〈四曲屏風〉 등 45건 45점

II. 용주사의 창건 배경과 왕실 물목의 內賜

용주사는 정조(1752-1800)가 私親 思悼世子(1735-1762)의 무덤인 顯隆園의 수호를 위해 능침사찰로 창건하였다.² 1789년 정조는 양주군 拜峰山에 있던 思悼世子の 묘 永祐園을 화산으로 遷園하여 현릉원으로 승격시켰으며, 그 이듬해 능지 옆에 옛 갈양사터를 원찰의 부지로 마련하고 창건을 시작하였다. 정조의 용주사 창건 배경에는 사친 사도세자에 대한 효행이라는 외적인 이유와 아울러 華城의 축조를 비롯한 절대적인 왕권의 확립을 빠뜨릴 수 없다. 정조는 英祖(1694-1776)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이지만, 형식상 영조의 첫 번째 세자였던 孝章世子の 대를 잇는 형식을 밟아 즉위하였다. 비록 효장세자의 대통을 이은 형식으로 왕위를 이었다 해도 결국 정조에게는 生父의 문제가 남게 되었고 이는 정조 자신의 왕권 확립 내지 왕위계승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³ 그래서 정조는 화성의 축조, 화산으로의 현릉원 遷園과 용주사 창건 등의 계획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수원을 親衛地域化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진원지로 삼고자 하였다.⁴

정조는 용주사의 寺格을 높이기 위해 당파를 불문하고 신하들에게 上樞文과 勸善文, 그리고 柱聯 등을 짓게 했다. 용주사 대웅보전의 상량문은 영의정으로 있던 蔡濟恭(1720~1799)이 지었고, 勸善文과 柱聯은 불교를 배척하였던 老論의 문신 李德懋(1741~1793)에게 맡겨 하였다.⁵ 정조의 명으로 용주사의 창건공사는 대단히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창건과 관련된 공사일정을 살펴보면, 건물터를 다듬는 날인 1790년 2월 19일부터 點眼되는 날인 9월 29일부터의 과정을 기

² 개인적인 祈福을 빌기 위해 사찰 안에 건립된 기원의 공간을 願堂이라 한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을 위해 願堂, 願刹, 陵寢寺, 造泡寺라는 이름으로 지정·건립되어 그 명칭이 병행하여 사용되었다. 용주사는 전각 하나가 아닌 사찰 전체가 원당의 기능으로 창건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願刹로 통일하여 명명하고자 한다. 왕실원당의 기능과 정치적 기반에 대해서는 탁효정, 「조선후기 왕실원당의 사회적 기능」, 『청계사학』제19집(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12), pp. 153~157; 朴炳璇, 「조선후기 원당의 정치적 기반」, 『한국불교학』제54호(한국불교학회, 2009), pp. 104~105 참조.

³ 정조는 즉위식 직후 죄인에 대한 사면을 내리고 殯殿 앞에서 신하들을 첫 대면하면서 사도세자에 대한 명을 내렸다. 이것은 사친인 사도세자의 追崇에 대한 정조의 본격적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 과인은 사도 세자의 아들이다. 선대왕께서 宗統의 중요함을 위하여 나에게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하셨거니와, 아! 전일에 선대왕께 올린 글에서 ‘근본을 돌로 하지 않는 것’에 관한 나의 뜻을 크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예는 비록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인정도 또한 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饗祀하는 절차는 마땅히 大夫로서 제사하는 예법에 따라야 하고, 太廟에서와 같이 할 수는 없다(嗚呼! 寡人思悼世子之子也. 先大王爲宗統之重, 命予嗣孝章世子, 嗚呼! 前日上章於先大王者, 大可見不貳本之子意也. 禮雖不可不嚴, 情亦不可不伸, 饗祀之節, 宜從祭以大夫之禮, 而不可與太廟同.)” 『正祖實錄』 권1, 卽位年(1776) 3월 10日(辛巳).

⁴ 정조의 불교정책과 용주사 창건과 관련해서 김준혁, 「朝鮮後期 正朝의 佛教認識과 政策」, 『中央史論』第12·13合輯(中央史學硏究會, 1999), pp. 35-58; 정해득, 「正祖時代 顯隆園 造成과 水原 移邑 硏究」(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 23-36; 이방섭, 「正祖의 壯勇營 운영과 정치적 구상」, 『조선시대사학보』 53(조선시대사학회, 2010), pp. 45-82.

⁵ 朝鮮總督府 編, 『朝鮮寺刹史料』(京城:朝鮮總督府, 1911), p. 41; 龍珠寺 編著, 『용주사』(사찰문화재연구원출판부, 1993), pp. 237-238.

록하고 있다.⁶ 7개월의 짧은 기간에 공사가 끝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국왕 정조의 추진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왕실의 원찰이자 국가의 사업으로 조영되는 용주사는 건립에 엄청난 비용이 소용되었다. 건립비용은 무려 8만 4천냥 이상의 지출이 소용되었는데 이 비용은 모두 시주에 의해 충당되었다.⁷ 용주사를 건립할 때 각 道 화주의 맡은 소임을 적는 명단을 살펴보면 八道都化主를 비롯하여 경기·충청·강원·전라·경상·황해 등 전국 각 지방의 책임을 맡은 승려와 지방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불사가 승과 속을 초월한 규모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⁸ 이와 같이 용주사 창건은 조정과 불교계가 동원되어 이루어진 大役事였다. 사도세자의 능침사찰을 세우는데 전국민의 시주를 모아 건립비용을 마련한 것은 불사비용을 경감시켜 조정 대신들의 반대를 막고, 사도세자와 정조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를 확인·천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790년 용주사가 完建되었고 사찰의 규모는 法堂·七星閣·香爐閣·祭閣·僧堂·天保樓·左右從樓·外三門·左右翼廊·東門·春家·井이 마련되었다.⁹

용주사를 창건한지 5년 후인 1795년에는 수원부사 趙心泰의 건의로 용주사 승려의 일부를 정조의 친위부대였던 壯勇營 外營에 소속하게 하고, 용주사의 주지는 南·北漢山城의 僧軍總攝을 함께 맡도록 하여 전국의 사찰을 專制하였다.¹⁰ 용주사의 승군은 정조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아 乙卯年에 화성 행원 시에 정조를 호위하며 배웅하기도 하였다. 용주사 창건은 효라는 명분을 통하여 유생층의 반발을 막고 생부인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어주게 하였고, 내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신원을 통한 정조의 정통성을 확보를 하게 함으로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창건한 용주사로 하여금 전국 사찰을 다스리고 의승군을 통솔하게 하여, 의승군 전체를 왕의 직속부대로 만들어 군사력을 장악하게 하였다.¹¹

한편 창건 이후 용주사에는 왕실로부터 여러 物目들이 내사되었다. 1795년 정조가 짓고 이를 판목에 새긴 <기복계>가 <佛說大報父母恩重經>과 함께 용주사에 내사되었다. 그리고 시기는 정확치 않지만 정조의 소장품으로 여겨지는 <文王方鼎> 1점과 <宣德爐> 2점을 왕실로부터 용주사에 내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과 Ⅳ장을 통해 상세히 살피고자 한다.

6 조선총독부 편, 앞의 책, pp. 47-48 各項擇日 참조.

7 華城 城役이 3년여의 공사 끝에 총 87만냥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므로, 사찰 창건에 1/10에 달하는 비용을 소용했다는 것은 용주사 창건 규모와 비용을 짐작할 수 있다. 용주사 편저, 앞의 책, p. 30.

8 조선총독부 편, 앞의 책, pp. 42-47.

9 용주사 관련 1차 자료로는 1993년에 용주사 대웅보전 담집에서 발견된 <三世像願記>와 『水原旨令謄錄』이 있는데, <삼세상원기>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가 편찬한 『朝鮮寺刹史料』에 용주사 창건과 관련한 李德懋의 勸善文, 八路邑鎮與京各宮曹慶施主錄, 용주사 공사를 시작한 開基일시부터 定礎, 立柱, 上樑, 造佛의 일시, 洪天浩의 上樑文, 천보루 상량문, 건물면적, 大施主者案, 各道化主僧 명단, 그리고 사찰에 봉안할 상과 불화 등을 조성한 인명의 명단인 <本寺諸般書畫造作等諸人芳啣>이 수록되어 있다.

10 『備邊司謄錄』第183冊, 正祖20年 丙子 3月 26日[김준혁, 앞의 논문, p. 25에서 재인용]

11 김준혁, 앞의 논문, pp. 54-55.

Ⅲ.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는 이름 그대로 국왕 정조가 화산 용주사에 내린 부처의 공덕을 칭송하는 불교식 계송이다. 계송의 내용은 정조의 문집인 『弘齋全書』 卷55 雜著에 수록되어 있으며¹² 이를 목판으로 새겨 용주사에 내사하였다. 불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원당을 혁파하려 했던 재위 초기와 달리 재위 말기 정조의 불교관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¹³ 이 점은 그가 지은 〈기복계〉와 정조가 명하여 간행한 〈佛說大報父母恩重經〉(1796년) 목판과 그 인정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정조의 불교관을 살필 수 있는 〈기복계〉의 내용과 용주사로 下送한 內賜本, 그리고 여러 곳으로 分藏되어 현전하는 〈기복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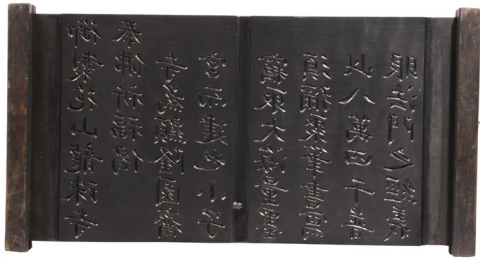
1. 용주사 소장 〈기복계〉 內賜本 2종

용주사에 소장된 〈기복계〉는 木板과 筆寫本의 두 형식으로 전해진다. 御製인 만큼 이를 목판으로 새겨 남기고자 하였고 또한 이를 필사하고 비단으로 장황하여 왕실의 원찰인 용주사에 하사하여 봉안토록 한 것이다. 먼저 목판을 살펴보면, 총 9枚의 판목을 사용하여 기복계의 내용을 음각으로 새겼다.(이하 용주사 소장 〈기복계〉 목판본) 앞의 8매는 앞·뒤 양면을 사용하여 음각하였고, 마지막 아홉 번째 면은 앞면 만을 판각하여 총 17면을 이루고 있다 도 1. 첫 번째 판목에는 “어제화산봉불기복계”라는 제목에 이어 序文을 적었고, 본문은 初序分과 正宗分, 結偈分으로 나누어 〈기복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복계〉 서문에는 정조가 용주사를 건립하게 된 배경과 기복계를 짓게 된 경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절은 顯隆園의 齋宮으로 세운 것이다. 소자[정조]는 큰 바다 만큼의 먹과 수미산만큼의 붓을 가져다가 8만 4천의 普眼法門의 經義와 敎義를 베껴 썼으며 삼가 偈語[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三業 공양을 바치니(첫째 業은 몸이니, 지성으로 예경하는 것이고, 둘째 업은 입이니, 말을 내어 칭찬하고 찬미하는 것이며, 셋째 업은 뜻이니, 바른 뜻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은혜에 보답하는 福田을 짓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는 길러주신 은혜가 있으니 공경으로 공양하면 이것이 바로 보은의 길입니다. (부모에게는 양육한 은혜가 있으니, 만약 잘 공양하면 이를 은혜에 보답하는 복전이라 이름 한다.)” …하락

¹² 『韓國文集叢刊』263- 弘齋全書, 권55 雜著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민족문화추진회, 2001), pp. 353-356.

¹³ 김준혁, 「정조의 불교인식 변화」, 『중앙사론』 제16집(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02), p. 7.



도 1.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목판 1면), 1795년, 나무, 전곽 34.0×55.5cm, 용주사 소장



도 2.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印經 17면), 刊印 연대 미상, 용주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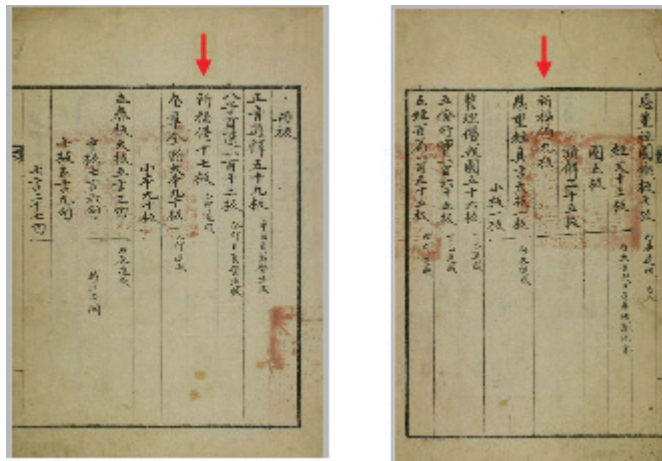
“寺爲顯隆園齋宮而建也。小子竊取大海量墨。須彌聚筆。書寫此八萬四千普眼法門之經義乘教。謹述偈語。以效三業供養。(一業謂身至誠敬禮。二業謂口發言稱美。三業謂意正意念念。)用修報恩福田(謂父母有養育之恩。若能供養恭敬。是名報恩福田。)”…下略¹⁴

용주사 창건에 대한 배경을 기록한 서문에 이어 본문이 이어진다. 본문에 해당하는 정종본은 7개의 편으로 구성하여 내용을 적었다. 뒤이어 결계분도 2편으로 구성하고 있다. 글자는 大字와 小字로 새겼는데 작은 글씨인 소자는 대자로 쓰인 글을 설명하는 주석이다. 마지막 17면에는 기복계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정조의 藏書印인 ‘弘齋’와 ‘萬機餘暇’를 새겼다. 그리고 정조 즉위 20년인 을묘년 여름에 계를 지었다는 내용(子卽昨二十年乙卯中夏)이 쓰여 있어 〈기복계〉의 조성 연대가 정조 즉위 20년 을묘, 즉 1795년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말미에는 “奎章之寶”라는 所藏印도 확인되고 있다 도 2. 이를 통해 『홍재전서』 권55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에 기록된 乙卯年의 연대를 목판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판은 을묘년 즉 1795년 여름에 조성하여 그 이듬해인 병진년(1796)에 〈은중경〉 經文 13매, 圖 5매, 諺解 25매와 함께 용주사에 내사되었다.¹⁵ 이 사실은 鑄字所에서 지켜야 할 節目과 本所 내에 보관하고 있는 활자나 冊板 등을 적은 『鑄字所應行節目』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3-1, 2. 즉 1795년 정조가 지은 〈기복계〉의 내용은 편찬기관인 주자소에서 목판으로 새겨 왕실의 원찰

¹⁴ 『弘齋全書』권55 雜著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민족문화추진회, 해제 및 석문은 한국고전번역원사이트 <http://db.itkc.or.kr> (2015.11.18. 검색) 참조. () 안의 내용은 주석의 내용이다.

¹⁵ 한편 기복계와 함께 용주사로 내사된 〈은중경〉의 경문과 그림, 언해는 널리 알려진 용주사본 『佛說大報父母恩重經』(1796년)이다. 용주사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한문·언해본의 합본으로 구성되었고 김홍도가 변상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전하는 목판으로 그 이전에 간행된 『부모은중경』에 비해 구성과 체제, 그리고 변상도 밑그림의 필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복계〉와 〈은중경〉의 조성의 정조대 官撰 編纂 기관인 鑄字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자소유행절목』의 기록에 의하면 조성된 〈기복계〉 목판과 하송된 목판 〈기복계〉의 판목이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기복계〉는 목판의 앞뒷면 총 17면의 판목에 새기지만 총 판목은 9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성된 〈기복계〉의 목판 수와 하송된 수가 17판과 9판으로 다르게 기록되었다고 생각된다.



도3-1, 2. 『鑄字所應行節目』, 1814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자표시)

용주사에 내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용주사에는 목판에 새겨진 <기복계> 이외에 필사본 형식의 <기복계>가 더 있다.(이하 용주사 소장 필사본 <기복계>①) 필사본 형식의 기복계에는 45×34cm의 큰 크기에 대자의 행서로 偈의 내용이 쓰여 있다. 두 점의 필사본 가운데 장황이나 상태가 좋은 <기복계>는 雲寶文이 그려진 파란색 비단바탕을 표지로 하고 邊鐵하였으며 5개의 못을 박아 고정하였다 도 4. 못의 앞뒤에는 국화문판을 덧대어 장황하였으며 변철의 중앙에는 둥근 고리가 걸려 있어 전체적으로 어람용 의궤와 동일한 형식으로 장황하였다. 글의 내용과 구성을 목판본과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하지만 목판본에는 初序分과 正宗分, 結偈分の 편제가 새겨진 반면 필사본 <기복계>는 편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홍재전서』 권55 잡저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계>의 내용과 비교해보



도 4.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①, 필사본, 45.0×68.0cm, 용주사 소장



도 5.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②, 필사본, 45.1×67.7cm, 용주사 소장

면 결락된 글자가 있다. 목판본에는 본문의 내용을 대자와 소자로 나누어 적은 반면 필사본에는 동일한 크기로 썼다. 즉 주석에 해당되는 내용도 본문과 같이 쓰고 있다. 목판본과는 달리 필사본에는 조성연대를 기록하지 않아 언제 필사되고 장황되어 용주사에 내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국왕의 지은 글인 만큼 의궤와 동일한 형식으로 장황을 하였고 원찰인 용주사에 내사한 것이다. 용주사에 소장된 또 하나의 필사본 〈기복계〉(이하 용주사 소장 필사본 〈기복계〉②)는 비단 장황본과는 달리 종이로 표장이 되어 있고 화면 상부에는 ‘上’자가 표시되어 책의 위쪽임을 표시하고 있다 도 5. 내지를 펴면 빈 공란의 두 면에는 얼룩이 상당수 분포되어 있다. 3면에서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라는 제목이 쓰여 있다. 비단 장황본 〈기복계〉에는 적혀 있지 않은 책의 편제를 알 수 있는 科文이 쓰여 있다. 표지를 제외한 내지의 수량은 비단 장황본이 26면, 종이 장황본은 11면으로 수록량이 비단 장황본에 비해 훨씬 적다. 종이 장황본은 과문을 기록하여 〈기복계〉의 체제를 알 수 있도록 했지만 〈기복계〉 전체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다. 종이 장황본 〈기복계〉는 주석에 해당되는 내용이 생략되었고 주요 내용만을 축약하여 기록하였다. 필사한 글자는 비단 장황본에 비해 자간이 넓고 가로와 세로의 획이 가늘다. 비단장황본과 같이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 이와 같이 장황상태가 다른 두 종의 필사본 〈기복계〉가 용주사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용도가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비단 장황본은 왕의 御製로서 상징물과 같이 소장되었고 종이 장황본은 열람용으로 함께 소장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2.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기복계〉

목판에 새긴 〈기복계〉는 목판 위에 종이를 대고 印經할 수 있기 때문에 판각 이후 여러 본으

로 인출되었다. 그리고 인출된 본은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및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¹⁶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총 6종의 〈기복계〉가 소장되었다 표 1. 규장각본은 크게 2종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종은 인정본이 아닌 小字로 필사한 〈기복계〉(奎6724)가 있다. 奎6724는 작은 해서체로 10장의 종이 위에 〈기복계〉의 내용을 필사하였다. 용주사에 소장된 필사본이 대자의 글씨로 대형 서첩으로 장황된 반면 규장각본은 27.0×18.6cm의 크기에 작은 소자의 해서로 쓰여 있다. 印記에는 ‘學部圖書’, 및 ‘編輯局保管’이 찍혀 있기 때문에 高宗年間 學部の 編輯局에서 보관했던 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규장각 소장의 나머지 본들은 모두 용주사 〈기복계〉 목판을 인정하여 帖으로 제작한 것이다. 奎9987은 ‘摛文院’과 ‘奎章之寶’가 찍혀 있고 奎9988, 奎9990, 奎9993은 ‘奎章之寶’, ‘弘齋’, ‘萬機餘暇’의 印記가 남아 있어 용주사 소장 〈기복계〉를 그대로 인정한 본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3본의 표지 뒷면에는 해서로 그 소장처가 쓰여 있는데, 奎9988는 鼎足山城, 奎9993은 太白山山城, 奎9990은 五臺山史庫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적힌 세 곳은 조선왕조의 實錄을 보관하는 史庫가 있던 지역임에 주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주사 〈기복계〉 목판은 용주사로 내사되기 이전 여러 번 인정하였고 실록과 같이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을 보관하는 사고에 나누어 분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규장각 소장 奎10080도 〈기복계〉 목판을 인정하여 제작한 본이나 印記나 장서기는 남아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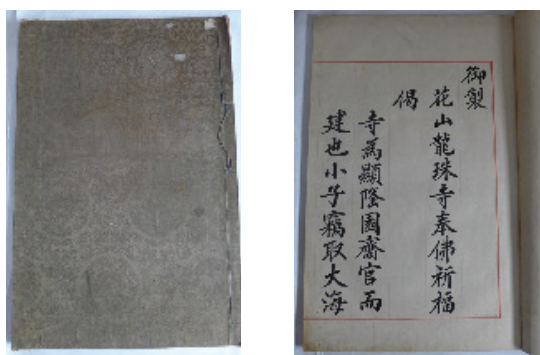
표 1. 규장각 소장 〈기복계〉 비교

번호	규6724	규9987	규9988	규9993	규9990	규10080
이미지						
판본	필사본	목판 인정본	목판 인정본	목판 인정본	목판 인정본	목판 인정본
印記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摛文院, 奎章之寶	奎章之寶, 弘齋, 萬機餘暇			
所藏處			정족산성	태백산성	오대산성	

¹⁶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기복계〉의 서지사항에 의하면 11종 모두 목판 〈기복계〉를 인정하여 제작한 본이라고 한다. (<http://yoksa.aks.ac.kr> 2015.11.19. 검색) 印記에 의하면 “奉謨堂印”이 찍혀 있다. 봉모당은 규장각의 역대 선왕의 유품을 보관하던 전각으로 여기에 있던 전적은 장서각으로 옮겨졌다.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복계〉

국립중앙박물관에도 1종의 필사본 〈기복계〉가 소장되어 주목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엷은 갈색의 당초문 비단바탕으로 장황하였는데 가장자리에는 五針眼訂으로 線裝한 흔적만이 남아 있다 도 6. 용주사에 소장된 비단 장황본과 비교해볼 때 비단으로 장황된 점, 규모 등에서 유사하므로 원래는 용주사 내사본과 같이 변철하고 국화문 양판을 덧대어 장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박물관으로 입수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 〈기복계〉는 1923년 6월 5일 일본인인 아마이케 시게다로(天池茂太郎)로부터 9엔에 구입하였다고 기록되었다.¹⁷ 입수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복계〉는 본관품 8967로 등록되었다. 이 〈기복계〉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은 용주사 소장본 〈기복계〉와 유사하고 목판본에 새겨진 初序分과 正宗分, 結偈分の 편제도 명확히 구분되었다. 글자 역시 용주사 소장본과 같이 대자의 정자의 해서로 썼다. 내용면에서 보면 『홍재전서』 권55 雜著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의 체재와 내용면에서 가장 일치한다.



도 6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필사본, 67.4×44.3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 8967) 소장

4. 〈御製龍珠寺奉佛祈福偈〉의 성격

〈기복계〉가 지어진 1795년은 정조에게 뜻 깊은 해였다. 이 해는 정조의 모친인 혜경궁 홍씨의 나이가 회갑이 되는 해로, 그해 2월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華城行宮에서 回甲宴 進饌 禮를 기획하였다. 화성행차 넷째 날 정조는 혜경궁을 모시고 顯隆園에 행차하여 성묘를 하였고 현릉원을 관리하는 관원들의 벼슬을 올려주고 용주사의 總攝인 獅駟과 首僧 哲學에게는 帖加하

¹⁷ 아마이케 시게다로는 고미술 중개상으로, 일제강점기 최대의 미술품 경매회사로 1922년 설립된 京城美術俱樂部의 이사이기도 하였다. 그는 부어나 개성 등 古都에서 발굴된 유물을 여러 경로로 팔고 샀으며 우리 관에도 그를 통해 구입한 유물이 다수 있다.

여 치하하였다.¹⁸ 다섯째 날에는 華城行宮에서 혜경궁의 진찬례를 올렸다. 그리고 여름[仲夏] 정조는 “용주사불불기복계”라는 제목으로 용주사를 창건하게 된 배경과 부처의 복을 기원하는 계송 10수를 지었으며 이를 목판에 새겨 용주사에 하사하였다. 현릉원 천봉과 원자가 탄생한 1790년 이후 정조는 불교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인다.¹⁹ 재위 초기 불교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원당을 혁파하려던 정조가 현릉원을 천봉하고 원자가 태어나자 부처의 복을 기원하는 기복계를 직접 지어 사도세자의 위패를 봉안하여 원당에 하사한 것이다.

정조의 기복계에는 불교에 대한 정조의 해박한 지식과 이해가 보인다. 국왕이 짓고 그 내용을 목판에 새긴 〈기복계〉는 그 중요성만큼 여러 본으로 印經하여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에 나누어 分藏하였고, 원판인 〈기복계〉목판은 현릉원의 능사이자 왕실의 원찰인 용주사에 내사하여 봉안하도록 하였다. 〈기복계〉는 大字로도 몇 본이 필사되었다. 그 가운데 한 본은 국왕의 어람용의 궤 형식으로 장황하여 이를 왕실의 원찰인 용주사에 내사하여 봉안토록 하였다. 〈기복계〉는 효사상이라는 명분을 통하여 생부인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어주게 하였고, 내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신원을 통한 정조 자신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상징적인 산물일 뿐 아니라 정조의 불교관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IV. 〈文王方鼎〉과 〈宣德爐〉

용주사에 소장된 3점의 향로는 정조가 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3점의 향로는 전통적인 향로가 아니라 중국 고동기 鼎을 방제한 것으로 2점은 方鼎形이고, 나머지 1점은 八角形으로 조선시대 사찰의 향로가 대부분 고려의 전통을 계승한 향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향로들은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을 벗어난 이들 향로는 정조의 하사품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제작 시기부터 명칭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이 장에서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들 향로들의 특징과 명칭, 명문에 대해 살펴보고, 성분분석을 통해 밝혀진 재질에 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조의 고동수집과 감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文王方鼎

용주사 소장 3점의 향로 중 기형이 같은 2점의 향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11호로 지정된 금동향로이다 도 7. 이 향로는 고대 중국 청동기인 方鼎을 방제한 것으로 방형의 몸체에 구연에 귀가

¹⁸ 『국역일성록』 정조19년, 을묘(1795), 윤2월12일(갑오), 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DB에서 참조(2015년 11월 19일 검색)

¹⁹ 정조 즉위 10년(1786) 5월 세자인 文孝世子가 병으로 급사하고 난 뒤 다시 원자가 태어난 것은 1790년으로 당시 신하들도 현릉원을 천봉하고 세자가 탄생했다고 인식하였다. 김준혁, 앞의 논문(2002), pp. 15-23.



도 7. <文王方鼎>, 중국 청, 높이 31.0cm, 경기도 유형문화재 11호, 용주사 소장



도 8. 도 7 주문왕정의 부분(문양)

불은 수직귀[立耳]와 납작한 扁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향로의 다리는 夔를 형상화 한 扁足으로 別鑄 후 리벳으로 몸체와 연결하였으며, 다리의 상부는 도금하였다. 방형의 몸체는 4개의 판을 별주 후 땀으로 접합하였고, 몸체 양끝의 扉稜과 바닥판도 별주 후 땀으로 접합하였다. 구연은 측면에 雷文이 새겨져 있으며, 별주 후 땀으로 접합하였다. 귀는 구연 위에 불은 수직귀로 마름모형의 뇌문이 새겨져 있으며, 역시 별주 후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뚜껑의 측면에는 덩굴문양이 새겨져 있고, 여백은 어자문으로 메웠다. 뚜껑

정상의 투조 煙空板은 별주 후 땀으로 접합하였으며, 투조 연공판 중앙의 손잡이는 리벳으로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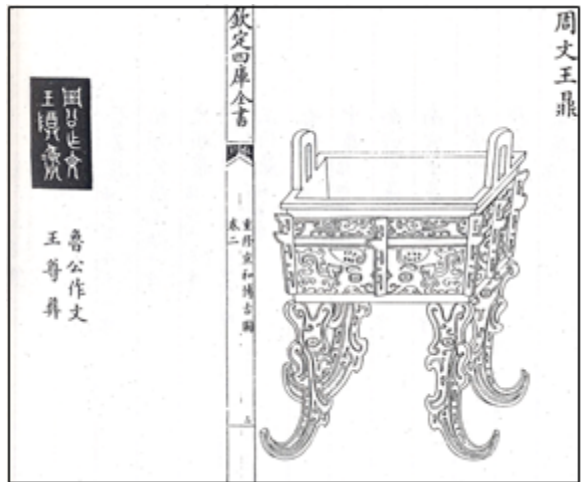
이 향로의 몸체에 새겨진 문양은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몸체의 상단과 하단에는 각기 다른 문양을 시문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문양의 구조로서 상단과 하단 모두 보조문양으로 뇌문을 사용하였고, 주문양은 보조문양으로부터 돌출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단의 주문양은 두 마리의 용이 교차하는 문양을 좌우 3구씩 대칭으로 표현하였고, 하단의 주문양은 饕餮를 대칭으로 표현하였다 도 8. 또한 상단과 하단의 주문양은 도금을 하여 문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문양으로부터 주문양을 돌출시키는 구조는 商代後期 古銅器의 문양표현 방법으로 二層花라 부르고 있으며, 북송대 이후 청대까지 제작된 仿古銅器에서도 지속되는 표현방법이다.

이 향로의 바닥면 중앙에는 방형의 문양틀 안에 篆書로 7자의 명문을 새겼는데, 이명문은 이 향로의 명칭과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도 9. 7자의 전서는 “魯公作文王尊彝”이라는 명문으로 북송 휘종대에 편찬된 『宣和博古圖』 권2에 수록된 周文王鼎의 명문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도 10.

“魯公作文王尊彝”라는 7자의 명문 중 魯公은 周公을 말하며, 文王은 주나라의 문왕을 말하는 것이고, 尊彝은 祭器라는 의미이다. 『선화박고도』에는 周公이 아버지인 周 文王을 제사지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⁰ 따라서 용주사 소장 〈주문왕정〉은 『선화박고도』의 〈주문왕정〉을 仿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명문에 기록된 주공과 문왕은 유교적으로 중요한 역



도 9. 도 7 주문왕정의 부분(명문)



도 10. 『선화박고도』 권2의 〈周文王鼎〉

²⁰ 『宣和博古圖』卷2, 「周文王鼎」, 文淵閣四庫全書 840, 子部 146, 譜錄類(臺北: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1983), pp. 404-405.



도 11. 〈周文王鼎〉, 明代, 높이14cm 臺灣 故宮博物院 소장



도 12. 〈玉製周文王鼎〉, 清代, 높이 18.6cm, 臺灣 故宮博物院 소장

사적 인물이며, 문왕방정은 명·청대에도 방제가 이루어졌다. 현재 대만고궁박물관에는 명대에 방제한 〈주문왕정〉^{도 11} 과 청대에 방제한 〈주문왕정〉이 소장되어 있다 ^{도 12}. 이들 〈주문왕정〉들도 모두 편족에 방형의 몸체와 수직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체에 새겨진 명문도 동일하다.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명대의 〈주문왕정〉은 熱河의 행궁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선화박고도』 권2의 〈주문왕정〉을 그대로 방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몸체의 상부에는 한 마리의 夔, 하부에는 도철이 비룡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표현되어 있고, 명문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반면 청대의 〈옥제주문왕정〉은 명대의 〈주문왕정〉과는 달리 몸체에는 도철만을 표현하고 있어 같은 방제이지만 일부 구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편족과 방형의 몸체와 수직귀라는 기형적 특징과 명문은 『선화박고도』의 〈주문왕정〉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주사 소장 〈주문왕정〉도 편족과 방형의 몸체, 수직귀라는 기형적 특징과 명문은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몸체 상단의 문양을 기가 아닌 용으로 표현한 점 등은 〈선화박고도〉의 〈주문왕정〉을 충실히 따른 명대의 것과는 달리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한 청대의 〈주문왕정〉의 계통으로 판단되어 청대에 방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2. 宣德爐

용주사 소장 팔각향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향로는 4개의 다리와 2개의 귀가 달린 팔각의 鼎形향로이다 ^{도 13}. 鼎은 三足과 兩耳가 달린 圓鼎과, 四足과 兩耳가 달린 방정으로 나뉘는 것을 고려하면, 이 팔각향로는 특수한 예에 속한다.



도 13. 〈宣德爐〉, 清代, 높이 20.5cm, 경기도 유형문화재 12호, 용주사 소장



도 14. 도 13 선덕로의 부분(명문)

이 향로는 구연을 8각으로 주조한 후 몸체와 땀으로 접합하였고, 구연 아래의 목 부분은 안으로 들어간束頸形으로 8각의 각 면에는 가로로 긴 방형의 명문곽을 만들어 ‘萬歲樂’ 글자를 새겼고, 주변으로 연화당초문을 표현하였다. 8각의 몸체는 비릉으로 구획을 하고 각 면에는 능형의 문양틀 안에 夜月落雁圖, 雨中漁翁圖, 村中行事圖, 山中別莊圖, 孤舟歸帆圖, 山寺參拜圖, 江村尋方圖, 曉天出帆圖의 八景을 새겼다. 비릉은 별주 후 땀으로 접합하였다. 목에 붙은 양이는 옆귀(附耳)로 한 마리의 용을 별주 후 땀으로



도 15. 〈宣德爐〉, 明 宣德年間(1426-1435), 높이 7.6cm, 臺灣 故宮博物院 소장

접합하였다. 몸체의 저부는 별도의 판을 주조 후 몸체와 땀으로 연결하였고, 외저 중앙에는 이 중원을 만들고 안쪽에 전서로 ‘大明宣德年製’를 새겼다 도 14.

명문인 ‘大明宣德年製’ 이 향로의 명칭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 명문은 宣德爐라고 부르는 향로에 새겨지는 관식이다.²¹ 宣德爐는 明代 郊壇과 太廟 및 황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향로로 명대 宣德 3년(1428) 泰國에서 보낸 風磨銅과 일본의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여 宣德 3년(1428)과 宣德 4년(1429) 3번에 걸쳐 18,000여점을 주조하였다 도 15. 또한 『宣德鼎

²¹ 宣德爐에는 小篆의 宣, 宣德, 宣德年製나 歐陽詢體의 楷書로 大明宣德年製의 관식이 새겨져 있다. 張光遠, 「大明宣德爐」, 『故宮文物』32(1985), p. 13.

彝譜』라는 책을 만들어 당시에 제작하였던 선덕로의 기형을 수록하였다. 宣德爐는 황실 이외에 고위관료 및 사찰과 道觀에 하사되었고, 하위관료 및 민간에서도 宣德爐의 소유 열기가 생기면서 명대부터 仿製品들이 제작되었다. 明代末期 宣德爐의 90%는 방제품이었을 정도로 宣德爐의 仿製는 성행하였고, 清代에는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宣德爐를 소유할 정도로 유행하였다.²²

용주사 소장 〈선덕로〉는 『선덕정보』에는 수록되지 않은 기형이므로 명대 또는 청대에 방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대의 방제한 선덕로는 선덕 3년과 4년에 제작한 원래의 기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용주사 소장 〈선덕로〉는 청대에 방제한 선덕로로 추정된다.

3. 〈문왕방정〉과 〈선덕로〉의 재질

용주사 소장 2점의 〈주문왕정〉과 1점의 〈선덕로〉는 금동과 청동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X선 형광분석기(XRF)를 통해 재질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재질과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2점의 〈주문왕정〉의 경우 한 점은 구리와 납, 주석, 비소와 아연이 들어간 합금이었고, 다른 한 점은 구리와 아연이 주성분인 황동이었고, 용과 도철의 도금은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선덕로〉는 구리와 아연이 주성분인 황동제임을 알 수 있었고, 납과 주석이 소량으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용주사 소장 〈주문왕정〉과 〈선덕로〉의 재질도 수정이 필요하다.

4. 정조의 古董수집과 감상

용주사 소장 〈주문왕정〉과 〈선덕로〉는 정조가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조가 하사한 것이라면 〈주문왕정〉과 〈선덕로〉는 정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조는 세자시절부터 고동수집과 감상의 취미가 있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弘齋全書』의 기록이다. 『홍재전서』 권4 「春邸錄」4 記 〈太湖石記〉에는 정조가 갑오년 봄에 태호석을 구해 창문 앞에 藥罐·香甌·文王鼎·宣德爐를 배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³ 정조는 오랫동안 태호석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774년 古苑으로부터 태호석을 구해 창문 앞에 문왕정, 선덕로 등과 함께 놓았다고 한다. 정조가 태호석을 구한 시점이 갑오년인 1774년이므로 문왕정과 선덕로를 구한 것은 그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조는 세자시절 1774년 이전부터 고동 수집과 감상의 취미가 있었고, 주문왕정과 선덕로는 정조의 고동수집과 감상의 대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조가 소장하였던 문왕정은 조선후기인 18세기 중반에 이미 조선에 유입되어 있었는데, 이윤영의 문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윤영의 『丹陵遺稿』 卷9에는 1749년 이윤영

²² 張光遠, 앞의 책(1985), pp. 4-15.

²³ 『弘齋全書』 卷4 「春邸錄」4 記 〈太湖石記〉, …歲甲午春, 得之古苑, 薰而沐之, 置之晴窓之前, 與藥罐, 香甌, 文王之鼎, 宣德之爐.

이 吳瓚(1717-1751)의 서재인 山天齋에서 문왕정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²⁴ 이 외에도 『湛軒書』와 『熱河日記』 등에도 문왕정에 대한 기록이 있어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문왕정에 대한 인식과 함께 수집과 감상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조의 소장품의 하나였던 선덕로도 18세기 중반에 조선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英祖實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승지 權一衡을 명하여 皇壇의 향로를 奉審하도록 하니, 대개 금년에 冬至使로 갔던 使行이 얻어온 것이었다. 권일형이 돌아와 아뢰기를, ‘향로의 전면에는 大明宣德年製라 쓰여 있고 향로의 뒷면에는 內壇郊社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끼가 짙게 끼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병조판서 洪啓禧는 말하기를, 鑄錢所에 향로를 판매하는 자가 있는데 또한 明나라 宣德 연간에 제조한 것입니다.²⁵

英祖 27年인 1751년 皇壇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향로는 같은 해에 淸에 冬至使로 갔던 使行이 얻어온 것이고, 大明宣德年製와 內壇郊社라는 명문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향로에 새겨진 大明宣德年製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明代 宣德爐의 관식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반에는 황단에 사용했던 선덕로가 조선의 사신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암집』 등에도 宣德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후기 선덕로에 대한 인식과 유입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용주사 소장 〈주문왕정〉과 〈선덕로〉는 정조가 1774년 이전 수집하여 감상하던 것으로 사도 세자의 현릉원의 능침사찰인 용주사가 1790년에 창건되자 정조는 그가 소장하고 있던 〈주문왕정〉과 〈선덕로〉를 용주사에 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주사에 소장된 2점의 금동향로와 1점의 팔각청동향로는 정조의 하사품으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재질 분석결과 이들 향로들은 구리와 아연 합금인 황동제로 확인되어 기존에 알려진 재질과는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²⁶ 또한 각각의 향로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금동향로는 〈주문왕정〉, 팔각청동향로는 〈선덕로〉임을 알 수 있었다. 〈주문왕정〉은 『선화박고도』의 〈주문왕정〉을 바탕으로 청대에 방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선덕로〉도 『선덕정정보』에 수록된 기형과 차이가 있어 청대에 방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향로들은 정조가 세자시절 소장하였던 〈주문왕정〉과 〈선덕로〉로 추정되며, 1774년 이

24 李胤英, 『丹陵遺稿』 卷9 丹陵錄, 往在己巳冬, 敬父報梅花開, 余與元靈諸人, 往會山天齋中, 梅龕鑿圓竅, 障以雲母, 白葩英英, 如在月中, 其傍燹文王鼎, 他古器數種, 亦清楚可意.

25 『英祖實錄』 卷74 英祖 27年(1751) 7月 21日(을유)條.

26 향로의 과학적 분석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노지현 학예연구사와 윤은영 연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전 정조는 이 향로들을 수집하여 감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침사찰인 용주사가 1790년에 창건되자 그의 소장품을 하사한 것으로 보이며, 〈주문왕정〉의 경우 주공이 아버지인 주문왕의 제사를 위해 만든 것인 만큼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침사찰인 용주사에 〈주문왕정〉을 하사한 것은 유교적인 명분에도 부합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용주사 창건 배경과 왕실원찰로서의 성격을 살펴보고 사찰에 소장된 〈봉불기복계〉와 〈문왕방정〉 및 〈선덕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조는 1789년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을 창건하고 그 능침사찰이자 원찰로 용주사를 창건하였다. 창건 이후 용주사에서는 매년 사도세자의 忌晨齋를 지냈다고 하니 원찰에 내사한 물품은 정조 자신의 소장품을 비롯해 다양한 왕실용품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용주사에는 왕실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花鳥四曲屏風〉을 비롯하여 〈夢金尺〉 등 왕실 관련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내사한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가 용주사에 없지만 거꾸로 왕실에서 용주사에 하사된 내용을 『홍재전서』와 『주자소옹행절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자료에는 정조대부터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에서 용주사로 내사한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와 현재 용주사에 전하는 왕실의 내사품을 통하여 18세기 후반 왕실에서 용주사에 내린 왕실용품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 정조의 불교관 및 왕권강화의 일부로 추진되어 온 용주사 창건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이러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18세기 왕실의 산물로 평가된다.

용주사 소장 正祖代 王室 內賜品

유경희, 이용진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에서는 사찰종합조사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대표적 왕실 원찰인 화성 용주사 소장 문화재를 조사하였다. 소장품 가운데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와 중국 제 향로를 倣한 〈文王方鼎〉과 〈宣德爐〉는 정조대 왕실에서 용주사로 하사한 物目으로 정조의 불교관과 18세기 후반 왕실 소장품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계〉는 부처의 복을 기원하는 계송으로 정조가 재위 20년인 1795년에 지었고 이듬해인 1796년에 그 내용을 목판본 9매와 필사본 2종으로 용주사에 하사하였다. 목판본의 성격은 왕이 지은 불교 계송인 만큼 그 내용을 기리기 위해 목판에 새기고 이를 왕실의 원당인 용주사에 하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필사본으로도 내용을 써서 용주사에 하사하였다. 〈기복계〉 목판본은 여러 번 印經하여 여러 史庫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및 장서각 소장의 〈기복계〉이다. 국왕이 효를 명분으로 직접 지은 만큼 그 위익에 맞도록 표장하고 중요성에 의해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에 分藏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복계〉는 정조의 불교에 대한 이해와 용주사 창건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한편 용주사 소장 〈주문왕정〉 2점과 〈선덕로〉 1점은 정조가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점의 향로는 중국 고동기인 鼎을 방제한 것으로 18세기 중반 淸으로부터 조선에 유입된 것이었다. 정조는 세자시절부터 고동수집과 감상의 취미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조 재위시절 향로는 그의 소장품이었다가 용주사가 창건되자 사찰에 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로 중 〈주문왕정〉의 연원은 중국 周나라 주공이 아버지의 제사를 위해 만든 것 인만큼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침사찰 용주사에 이 향로는 하사했다는 것은 유교적인 명분에도 부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위의 자료들은 정조의 불교관 및 收藏 경향, 그리고 18세기 왕실 컬렉션의 성격을 보여주는 왕실의 산물로 평가된다

키워드 : 정조, 용주사, 원찰,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文王方鼎〉, 〈宣德爐〉

Yongjusa, praying temple for royal family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and the Royal Gifts

Ryu Kyunghee, Lee Yongjin *

The Fine Arts Department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xamined the cultural properties housed in Yongjusa Temple in Hwaseong, Gyeonggi-do Province, a representative temple of the Joseon Dynasty for praying for Royal family, *Wonchal*, as part of the project of a general survey of Buddhist temples. The collections in Yongjusa Temple included *Eoje hwasan yongjusa bongbul gibokge* (Royal petitionary prayer offered to Yongjusa Temple written by Jeongjo); *Wen-Wang Rectangular Ding*, a copy of a Chinese incense burner; and *Xuandelu*. These objects were bestowed by the royal court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reflecting King Jeongjo's view of Buddhism and the characteristics of royal collections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Eoje hwasan yongjusa bongbul gibokge is a Buddhist stanza of petitionary prayer wishing for good fortunes which was composed in 1795, the 20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and in the following year, 1796, nine block books and two manuscript copies of the stanza were granted to the temple. The foreword of the petitionary prayer explains the background of Jeongjo's intention of establishing Yongjusa Temple, and the body of the prayer is written in date sequence. According to the prayer, King Jeongjo had commissioned Yongjusa Temple as a memorial temple for his father, Crown Prince Sado, but it was also intended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The stanza reveals that King Jeongjo had a profoun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Buddhism. What is noteworthy of the extant copies of stanza in Yongjusa Temple is that one of the two manuscripts is mounted in a similar style to the royal protocols, and the block books were printed and kept in several national archives in different parts of nation. It is presumed that the manuscript was mounted in such a manner to respect the intent of the king's building of the temple for his late father and was reserved in the national archives along with the annals of the dynasty for its significance.

* Associate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Two pieces of *Wen-Wang Rectangular Ding* and one *Xuandelu* housed in Yongjusa Temple are known to be gifts from King Jeongjo. The three incense burners are copies of the ancient Chinese vessel, cauldron, which was introduced to Joseon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from the Qing Dynasty. Historical records reveal that King Jeongjo was interested in collecting antiquities since the time when he was crown prince, and the incense burners seem to have been gifted to the temple when it was completed during his reign. *Wen-Wang Rectangular Ding* derives its origin from an incense burner that a king of the Zhou Dynasty, China, commissioned for his father's memorial service. King Jeongjo bestowed this incense burner to Yonju-sa Temple as a guardian temple for his father's mausoleum, which conforms to the Confucian value.

This study reveals King Jeongjo's view of Buddhism and his collection trends, and the aforementioned objects in the temple exhibit the characteristics of royal collections in the eighteenth century.

Keywords: King Jeongjo, Yongjusa Temple, *Wonchal*(praying temple for Royal family), *Eoje hwasan yongjusa bongbul gibokge*(Royal petitionary prayer offered to Yongjusa Temple written by Jeongjo), *Wen-Wang Rectangular Ding*, *Xuandelu*

